

불교·예술 접목한 도량 문 열다

강화 전등사 10월 23일 무설전 개원 법회 봉행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가 관광 사찰이 아닌 신형 중심 도량으로 변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전등사는 10월 23일 경내 무설전 부처님 점안식 및 개원 법회를 봉행하고 신형 도량으로서의 변화를 선언했다.

일반적인 전각이 아닌 석굴 형식으로 조성된 무설전은 단순한 예배 공간만이 아니라 강좌, 전시회, 공연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한국 정삼각 미술가들이 참여해 불사를 진행한 것도 큰 특징이다.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4대 협시불, 1천 원불은 김영원 홍익대 교수가 제작을 맡았으며, 오원배 동국대 교수는 후불탱과 신종탱을 조성했다. 특히 후불탱은 국내 최초로 프레스코 기법을 활용해 부처님 세계를 형상화했다. 무설전 공간 디자인은 이정교 홍익대 교수가 맡아 출입구부터 연등 디자인, 불단까지 섬세하면서 품위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이날 증명 법사로 나선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도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내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고 살아가다”며 “모양없는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전등사 무설전에 나타났다. 이 공간이 내 스스로의 불성을 깨울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등사는 10월 23일 경내 무설전 부처님 점안식 및 개원 법회를 봉행하고 신형 도량으로서의 변화를 선언했다.

전통과 현대 감각 조화
법회부터 전시회까지
다목적 이용 가능해져
금강경 3년 기도 입제

“석굴암도 조성 당시에는 시대를 담아낸 미술이었다”며 “21세기 가람은 21세기 미술을 창출할 의무가 있다. 무설전이 부처님의 법음과 오늘의 예술이 함께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원법회 이후에는 금강경 3년 독송기도도 입제했다. ‘금강경 3년 독송기도법회’는 강의와 기도가 함께 진행되며 일반 신도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전을 수지 독송

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수행활동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약 5분 간 독송할 수 있는 <금강경 약본>을 제작해 기도 동참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등사는 불교세가 열악한 인천 지역 불교를 위해 신형과 수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입제식에서 “금강경 독송은 근거에 따라 108독, 1000독, 3000독, 10000독이 진행된다. 이번 독송기도로 25만 관광객이 아니라 100만 신행자가 찾는 사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년 결사를 마치면 <금강경> 설법을 듣고 깨달은 1250비구와 같이 1250명의 금강행자를 배출시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화 전등사·신승일 기자

“이타심으로 세상 어둠 밝히고자”

불교호스피스협회 3주년 총회

한국 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3주년 총회가 10월 20일 한국불교대 옥불보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는 협회장 지현 스님과 상임이사 능행 스님을 비롯해 전국 7개 지부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른쪽 사진>



행사는 1부 총회와 2부 기념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지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타심과 동체대비심으로 봉사하는 불교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어둡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며 “여러분들이 호스피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불교 호스피스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조계종 포교원 산하 단체로 설립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대 창건 20주년 체육대회

10월 22일...두류공원 야구장서

한국불교대 대관행사 창건 20주년을 맞아 10월 22일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만 5천여 명의 동문신도들이 참석하는 등 여법하게 치러졌다.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펼쳐진 체육대회는 줄다리기와 400m 계주, 줄넘기 등의 운동경기가 진행됐다.

또한 풍물단공연과 축하 퍼레이드, 마유치원 축하공연 등도 펼쳐져 흥겨움을 더했다.

한국불교대 회주 우학스님은 “체육대회를 통해 한국불교대가 더욱 탄탄해지고 정법불교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가족찬불가대회 대상 ‘송 패밀리’ 수상

제 1회 전국가족찬불가 경연대회에서 송광사 신도가족팀 ‘송 패밀리’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10월 21일 대구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찬불가경연 대회는 5개 권역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29개 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상을 받은 송패밀리는 3대 가족 7명이 해금과 피아노를 연주하며 가족중창을 선보여 대상을 차지했다. 상금으로는 500만원이 수여받았다. 또 영천 은해사 가족중창단 ‘겸애소리’와 대전 비구사 청림회 소속 중창단 ‘파랑새’가 금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보현사 신용협동조합과 한국불교음악인협회가 찬불가의 확대를 위해 개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보현회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21일 대신초등학교서

나눔을 통해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익)가 10월 21일 부산 대신초등학교에서 ‘한마음 열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친선 축구경기, 제기차기, 훌라후프, 단체 계주, 보물찾기 등으로 심신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보현회는 32년 동안 소년소녀 가장 돕기, 교도소 방문, 장애인 후원 등 나눔으로 봉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야외 기도공간 청정성과 디자인

야외기도공간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다. 인도나 스리랑카는 물론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가보면 야외기도공간이 많고 그곳에서 기도에 몰입한 불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경주 남산에는 마애불을 조성하고 야외기도공간을 조성한 사례가 아주 많다. 이러한 야외기도공간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있어 온 것이니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다양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대학입학을 위한 수험능력시험을 앞두고 우리나라 온 사찰이 들쭉날쭉하다. 자식들의 무사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들이 절마다 넘쳐난다. 특히 오래되고 영

함이 있다고 소문난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야외기도공간에는 기도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사람이 많아서 설자리도 없고 절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야외기도공간을 보면 부처님을 중심으로 전면에 초를 켜기 위한 스테인리스스틸이나 유리로 만든 환과 향을 피우기 위한 향로, 공양물을 올리기 위한 단 그리고 불전함이 자리를 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성스럽게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공양물을 올리고 설 새 일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자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청정성이다. 이곳저곳에 질서 없이 만들어 놓아 산만해진다 시켜

떻게 그늘이 보기가 좋지 않은 초를 켜는 환과 재가 떨어져 주변이 지저분한 향로, 정갈하지 않은 방석, 아무렇게나 벗어 놓은 신발들은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과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도는 주변이 청정하고 고요하여 자기의 마음을 몰입시켜야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정하지 않은 야외기도공간에서 올리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야외기도공간이 청정해지려면 기도하는 당사자들이 부지런해야 한다. 기도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심을 내서 신발 정리에서부터 초 켜고 향 피우는 일 그리고 공양물을 올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에서 청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자기가 앉았던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는 것 역시 기도하는 자세로 행해야 한다. 청정도량은 그 도량의 주인이 제대로 관리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불자들은 깊이 인식해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회장)**



야외기도공간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도에 참여한 불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경기도 ○사찰

선목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창립 6주년**

농촌 사랑·나눔·봉사 한마당

주요행사

1부	2부	부대행사
창립 6주년 기념대법회	영산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농특산물 팔도 직거래, 다문화가정 고향 보내기 군장병 간식(초코파이 3백만개) 보시 나눔 농촌사랑 봉사 실천 다짐, 선목108장학금 시상

일시 10월 31일(수) 오후 1시

장소 서울시청앞 광장

회관 사절 소중한 인연되기 공양미 300석 모으기를 하오니, 화환 대신 공양미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금주 : 108산사순례기도회 소중한 인연되기, 농협 : 355 - 0013 - 6068 - 93

주관 : (사)108산사순례기도회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농협중앙회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TV, BBS,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